

“尹 체포 당연” “옹호세력 발본색원”... ‘광주 촛불’ 계속된다

광주시민들 온종일 화두... “반드시 처벌 받아야” 한목소리 국가 정상화 염원도...광주비상행동 매주 토 집회 등 지속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수괴’ 등의 혐의로 체포되자 광주시민들은 온종일 “당연한 일”이라며 “옹호세력들이 뿌리 뽑힐 때까지 촛불을 들겠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5일 오전 7시33분께 ‘1차 저지선’을 통과했다는 언론 보도를 출근길에 접한 시민들은 “이번에는 성공하겠다”는 기대감을 내비쳤다.

그로부터 약 1시간 동안 ‘2차 저지선 통과’, ‘철문 개방’ 등 예상보다 순조로운 과정이 연이어 들려오자 기대감은 커졌으나 윤 대통령 측이 공수처와 ‘자진 출석’을 협상한다는 소식에 “저게 말이 되냐”며 분통을 터뜨리기도 했다.

이후 오전 10시33분께 체포영장이 집행됐다는 보도가 나오자 시민들은 “이

제 됐다”며 아직 소식을 접하지 못한 주변에 서둘러 내용을 전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광주에서 열린 총궐기대회에 참석해 왔던 시민들은 “탄핵 인용과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총궐기대회에 5차례 참석했다는 이서연(27·여)씨는 “많은 시민들이 추위에 떨면서도 목소리를 내 온 것에 대한 결과로 오늘의 윤석열 체포라고 생각한다”며 “무너졌던 민주주의를 되살리기 위한 첫 걸음이 시작된 만큼 탄핵이 인용되고, 처벌을 받을 때까지 투쟁에 함께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김진형(31)씨는 “오늘은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다시 시작하는 날”이라며 “수사 기관은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걸 명심하고 윤석열에 대해 엄격하고 신속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체포된 가운데 ‘윤석열 정권 즉각 퇴진·사회대개혁 광주비상행동’ 관계자들이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속수사와 탄핵인용을 촉구하고 있다. /김예리 기자

계엄 후 탄핵 소추안 가결과 윤 대통령 체포 등 각 사건마다 위정자들은 물론 일반 국민들도 돌로 쪼개지면서 ‘반목의 골

이 깊어지고 있는 대한민국의 조속한 정상화에 대한 바람도 잇따랐다. 실제 이날 광주에서는 윤 대통령 체포

를 두고 찬반 진영 간 충돌이 빚어졌다. 국민의힘 광주 당협위원장 중심으로 구성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와 자

유민주주의 수호 광주연대는 이날 오후 2시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기자회견 시작에 앞서 개최 소식을 접한 ‘윤석열 정권 즉각 퇴진·사회대개혁 광주비상행동’은 광주 동구 전일빌딩245에서 하려던 윤 대통령 체포 관련 입장 발표 장소를 광주시의회로 옮겼다.

이에 윤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는 연대의 기자회견이 시작되자 광주비상행동이 강하게 항의해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현장을 지켜본 광주시 한 공무원은 “각자 지향점은 다를 수 있으나 누군가가 부추기는 반목에 시민들 간 충돌이 빚어졌다는 데 대해 안타깝다는 생각을 한다”며 “개인의 일상 복귀와 함께 국가도 하루빨리 안정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광주비상행동은 “매주 토요일에 열었던 집회는 앞으로도 계속된다”며 “내란의 주도자는 물론, 공범뿐만 아니라 드러나지 않은 모든 이들에 대한 법적 처벌이 이뤄질 때까지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안재영 기자

참사 17일 만에 여객기 잔해 수거 마무리 단계

오늘까지 완료...조사 종료까지 무안공항 활주로 폐쇄

정부 “콘크리트 둔덕” 등 위험시설 연내 조치” 재표명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17일 만에 사고 현장에 남은 기체 잔해 수거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15일 국토부 등에 따르면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전날부터 무안공항 활주로 사고 현장에서 기체 잔해를 수거했다.

기체에서 절단한 꼬리날개 등 수거된 잔해들은 공항 내부 정비고로 옮겨져 향후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수습 당국은 당초 이날까지 기체 잔해를 모두 수거할 예정이었으나 강풍 등의 여파로 16일까지 연장해 작업할 방침이다.

잔해 수거와 함께 사고 현장 주변 들판에서는 경찰·소방·군 당국 수습 명이 유류품·잔해 수색도 벌였다.

희생자 시신이 모두 유가족에게 인도된 지난 6일부터 계속된 수색 작업 결과 추가 발견된 미제조적은 51점이다. 또 승무원증, 손목시계 등 유류품 5

점도 추가 발견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DNA 검사 필요성을 검토하고 분석할 계획이며 경찰은 유류품의 신원을 확인해 유가족에게 인계할 방침이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참사 원인 규명 등을 위해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와 협업체 비행자료기록장치(FDR), 관제 레이더 자료, 공항 인근 CCTV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있다.

한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같은 날 오전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 18차 회의를 열고 전국 7개 공항의 ‘콘크리트 둔덕’ 등 위험시설에 대한 개선을 올해 안에 조치하는 내용을 논의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전국 민간, 민·군 겸용 공항 총 15곳 중 13곳의 항행안전시설을 대상으로 실시한 특별점검 결과

‘단단한 재질’의 로컬라이저 시설 9개 무안을 포함해 광주·여수·포항·경주·김해·사천·제주공항 등 전국 7곳에 존재한다고 발표했으며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이날 중 마련해 연내 완료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안재영 기자

‘거짓 현금영수증’으로 세액공제 순천시 공무원들 ‘징역형 징유’

공공 체육시설 사용료 현금 영수증을 부정하게 발행해 연말정산 때 세금을 공제받은 순천시 전현직 직원들이 당연퇴직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3단독 박영기 판사는 15일 공전자기록 등 위작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공무원 A씨와 전현직 공무원 6명 등 7명에 대한 1심에서 징역 3개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 가운데 4명은 이미 퇴직했으며 나머지 3명도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되면 퇴직해야 한다. /순천=정기 기자

檢, ‘압수품 절도’ 前 경찰 항소심서 징역 5년 구형

1심 2년 징역형...내달 5일 선고

검찰이 경찰서 증거물 보관실에 있던 현금을 훔치거나 범죄 피해금을 가로챈 전직 경찰에 대한 항소심서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형사2부(김영아 부장판사)는 15일 형사법정 전자화촉진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등을 선고받은 전직 경찰 A(48)씨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을 열었다.

A씨는 완도경찰서에 근무하던 지난 20

22년 10월부터 2023년 9월까지 통합증거물 보관실에 있던 현금 3천100여만원을 15차례 걸쳐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자신이 맡고 있던 강도치상 사건 수사 과정에서 압수한 증거물인 현금 9만 원 가량을 피해자에게 돌려준 것처럼 꾸민 뒤 횡령한 혐의로도 재판받았다.

절도·편취한 돈을 A씨는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경찰관의 본분에도 형사사건 압수물을 훔치거나 횡령하고, 사문서위조와 공전자기록위작 등을 반

복하는 등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고인의 범행이 경찰 조직과 대한민국의 사법질서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사했다.

쌍방 항소로 열린 이날 재판에서 검찰과 A씨 모두 사실관계 자체는 다투지 않아 곧바로 결심까지 이어졌다.

검찰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 측은 “범죄 수익을 대출금 변제 등의 용도로만 사용한 사정을 고려해 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5일 A씨에 대해 선고할 예정이다. /안재영 기자

전남서 ‘화기 부주의 화재’ 잇따라

전남지역에서 겨울철 화목보일러 등 사용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잇따라 발생했다.

15일 전남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남 오후 5시11분께 신안군 신의면 한 주택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 불로 주택 120㎡가 타 소방 추산 3천700여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 당국은 “주택 아궁이에서 불을 지피던 중 불씨가 튀었다”는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앞서 같은 날 오전 7시4분께 여수시 돌산읍 한 펜션 1층에서 불이 나 가전 도구 등 130㎡를 태우고 소방에 의해 진

압됐다.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3천300여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화재는 화목보일러를 가동시킨 집주인이 외출한 사이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 당국은 “겨울철 날이 추워지면 서 화목보일러 등의 난방장치 가동이 많아지고 있다”며 “주변의 인화물질을 치운 뒤 불을 피우고 소화기 등을 비치해 두는 등 사용 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안재영 기자

실리를 따진다면 가성비 좋은 피닉스입니다!

1. 믿을 수 있는 100% 국내공정
2. 신속하고 확실한 A/S
3. 합리적인 가격에 고품질 제품



고블 G-07 프리미엄
럭셔리 프리미엄 상급자용



피닉스 K-07
럭셔리 중상급자용



피닉스 G-01
초보 입문자용

FREE 전국 택배 무료 배송!

장인의 기술

오래기술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순수 국내제작으로
정밀함과 기술로 정성을 다해 만든 국내 장인 제품입니다.

ASTRO

최고의 명품 퍼크골프채
아스트로

A9 Nice Shot
상급자를 위한 정교한 방향성, 비거리, 타구감 향상



소비자가격 ₩ 1,180,000

헤드	단봉나부 / 고탄성 카본 / 황동
샤프트	최고급 고탄성 카본 100% (8강55g)
길이	85cm / 83cm (여성)
중량	525g (±10g)

A100 Nice
부드러운 타구감, 방향성, 비거리 최적화 / 골프엘리트 완전해결



소비자가격 ₩ 1,380,000

헤드	단봉나부 / 고탄성 카본 / 황동
샤프트	신공법으로 설계 초고탄성 카본
길이	85cm / 83cm (여성)
중량	525g (±10g), 샤프트 50g

A5
최적의 밸런스 루프러너 스텝과 안정적인 타구감



소비자가격 ₩ 800,000

헤드	단봉나부 / 고탄성 카본 / 황동
샤프트	최고급 고탄성 카본 100% (8강90g)
길이	85cm / 83cm (여성)
중량	525g (±10g)

영무SP sports

062) 653-4141

광주 남구 대남대로 252 (백운동 644-33)

www.sunparkgolf.com